

역대급 폭우 피해 돕기 지역 경제계 팔 걷었다

광주상의, 피해 기업 긴급 조사

금융·세제 등 지원 확대 나서

광주경총 소상공인 돕기

민생 소비쿠폰 시장 사용 제한

광주지역 경제계가 사상 최악의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 실태를 파악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개선책을 병행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계의 복구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일 광주상의·경총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에 내린 폭우로 하남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일대가 침수되면서 인근 공장의 생산 차질과 물류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생산설비가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물류 지연과 매출 감소, 노동자 출퇴근 차질 등 복합적인 경영 애로가 이어지고 있다.

호우 피해를 돕기 위해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회원사를 포함한 지역 기업의 피해 현황과 경영 애로사항을 긴급히 조사하고 있다.

전화·이메일·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공장·사업장 침수 피해와 함께 출퇴근 불편, 납기 지연, 공급망 차질, 유통 장애 등 실질적인 경영 손실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상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에 복구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세제 지원 확대, 물류·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하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 정보 제공을 병행하며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도움에 집중할 예정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폭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1일부터 차례대로 신청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등에서 사용해 침수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사용자는 일상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피해 상권 회복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경총은 이와 함께 정부에 호우 피해 기업 지원(납부 기한 연장·조사 유예 등), 무담보·저금리 융자, 전기 요금·건강보험료 등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책 등을 건의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오랜 경기 침체 속에서 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폭우 피해로 생계와 일터를 잃을 위기에 놓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계도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신속한 복구와 민생 회복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삼성전자 수원 KT 위즈 파크 체험존 삼성전자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물놀이와 야구를 즐길 수 있는 'KT 위터 페스티벌' 기간과 연계해 체험존과 셀피존을 운영한다. 고객들은 체험존에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과 갤럭시 워치8 시리즈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수원 KT 위즈 파크 '셀피존'을 찾은 야구 팬들이 갤럭시 Z 플립7으로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HS효성첨단소재 CDP 공급망 참여 평가 최고 등급

글로벌 ESG 평가 기관

리스크 관리 등 중목 A등급

HS효성첨단소재가 글로벌 ESG 평가 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주관 '2024 공급망 참여 평가(Supplier Engagement Assessment-SEA)'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

HS효성첨단소재의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바탕으로 하는 기후 전략 등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ESG 경영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20일 HS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올해 CDP 주관 2024 SEA 평가에서 전 세계 91개국, 2만 2777개 기업 중 1395개 기업만이 최고 등급인 A-List에 선정됐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HS효성첨단소재를 포함한 64개 기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DP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경영 전략,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ESG 평가 지표로 손꼽힌다.

HS효성첨단소재는 SBT 기반 기후 전략 수립,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공식 승인, 신규 평가 항목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HS효성첨단소재는 SBTi로부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 승인 받은 바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수상과 함께 ESG 경영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전 세계 상위 1% 기업에 수여되는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했으며, 2024 DJSI 코리아에도 2년 연속 편입되는 등 지속가능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 오나...5대銀 증가목표 약 3.6조 축소

‘50% 감축’ 제출하고 당국과 조율

5대 시중은행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3조~4조원 줄면서,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대출 문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하반기 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요청받고 최근 새 목표치를 제시했다.

대부분 은행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당시 당국이 언급한 지침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의 약 절반으로 줄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목표로 잡은 연간

증가액의 반 정도가 하반기에 배정됐고, 이 목표액의 50%만 제출했으니 올해 하반기 증가 목표는 기존 연 증가액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6·27 대책 발표 전 5대 은행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을 14조5000억원, 하반기 7조2000억원 정도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관리 목표는 3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스스로 제출한 목표만으로도 3조6000억원 정도 가계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아직 당국과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 은행별로 구체적 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가계대출 실적에 따라 축소율이 차등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과 은행권의 간간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면, 실수요자라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하반기 증가 폭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하는 만큼 결국 4분기에 목표 달성 압박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진행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도 18개 국내 은행의 3분기 가계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태도 지수는 각 -31, -22로 2분기(-11~11)와 비교해 뚜렷하게 ‘태도 강도’ 전방이 늘었다. 은행이 대출에 더 간간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권 여신 총괄 책임자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8월 제조업 경기 개선 전망

전망 PSI 102 기준치 상회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 기대감 속에 8월 국내 제조업 업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11일 업종별 전문가 121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2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8월 업황 전망 PSI는 전달(104)보다는 다소(2포인트) 내려갔으나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세부 지표로는 내수(104), 수출(95)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투자액(99→104), 제품단가(105→113)는 전달보다 올랐다. 다만, 생산(106→105), 재고(118→114), 채산성(102→101) 등은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2), 화학(123), 디스플레이(115), 바이오·헬스(105)가 기준선인 100 이상을 나타내 전망이 밝았고, 철강, 휴대폰, 기계는 기준선에 걸렸다.

가전(70), 조선(87), 자동차(82) 등은 각각 전월 대비 30포인트, 20포인트, 13포인트씩 내려가며 기준선을 밑돌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삼성전자 외인보유율 50%대 회복

개인은 하이닉스 대거 ‘쇼핑’

이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반도체 대장주 ‘원탁’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대거 담아 보유율 50%대를 회복했으며, 개인은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감수하며 SK하이닉스 순매수에 나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조87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지난달 월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액(7130억원)의 2배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율도 지난 18일 기준 50.19%로 지난 4월 24일(50.00%) 이후 3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반면 이달 들어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3010억원어치 팔았다. 지난 5월과 6월 2개월 연속 이어가던 ‘사자’ 행진을 멈춘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1일 장중 처음으로 30만 원을 돌파한 이후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시장 경쟁 격화로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가격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락할 수 있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대거 매물이 쏟아졌다.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12.2% 오른 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7.9% 내렸다.

개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이달 들어 1조

2330억원어치 순매수하고, 삼성전자는 2조3150억원어치 팔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의 ‘빚투’ 열기 역시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지난 17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는 3951억원으로 지난달 말(3052억원) 대비 3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는 8340억원에서 8138억원으로 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용잔고는 개인이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통상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은행, 목포수협과 상생발전 업무협약

금융소의 계층 금융지원 확대

광주은행은 “지난 16일 목포수협 본점에서 목포수협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정봉 목포수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금융소의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핵심 협력 분야는 목포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 우대 서비스, 소상공인·어업인 및 금융소의 계층 대상 금융지원 등이다.

특히 어업 외국인 근로자(E-10 선원취업 비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포용금융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상생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금융소외계층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현대차 美 전기차판매 연 2.7조원 감소 추정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안에 따라 반도체 업계 등에는 세액공제가 늘지만,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산업 전환 정책으로 수혜를 본 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12만3861대)을 기준으로 37% 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

OBBA에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협은 지난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한경협은 O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